



김 용 화  
(분지 편집장)

**뉴캐슬병 지속적 예방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사활을 걸어온 양계산업이 닭 질병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양계인들은 대부분 유럽형 고밀도 케이지 사육시설을 도입하여 증산과 생산비 저하, 그리고 환경공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접근했다. 의문의 여지없이 증산과 계분 처리는 다소 이론에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지나 생산성 향상만은 재론의 여지를 남겼다.

고밀도 사육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관리소홀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정이 되었어야 할 닭 질병들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말이지 최근에는 지구상에 상존하는 가금 질병은 모두 한국에서 대대적인 발생이 되고 있어 닭 질병의 온상이 되어가는 듯한 인상마저 갖게 한다.

닭 질병이 증가할 때마다 변이형이 출현하였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원인균을 분리하여 검사를 하면 종전과 같은 형태의 균주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가끔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기도 하고 변이형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나, 그 수는 극히 드문 편으로 보인다.

금년 연초부터 문제시되어 온 뉴캐슬병도 예

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흔히 발생되었던 형태의 바이러스였다. 이에 정부도 뉴캐슬병 퇴치를 위해 백신까지 구입하여 부화장이나 원하는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병이 감소는 커녕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의외로 원인이 상식 이하의 사양관리 내지 질병 방역 때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분무접종용 생균백신을 음수로 한다거나, 접종 시설의 미비, 인식부족, 번거로움 때문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조류는 돼지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많다. 닭에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간에 전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모두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조류라는 특성상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많다는 점은 닭으로 치자면 노출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뜻이다.

이말은 닭의 질병방역 관리가 보다 기술적이고, 집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백신조차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병을 유인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

늦은 감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구습은 버리고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닭 질병 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백신마저 접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계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웃 양계농가에도 엄청난 피해를 미쳐서 같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 양계산물의 자급계획 생산기반 보호 위해 필수적

양계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이후 과연 몇 년 이내에 몇 %의 물량이 수입산물로 대체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아 양계인들은 그저 막연한 상태로 예측을 하고 있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9년까지의 경기를 분석하여 「농가전망 2000」을 통해 밝힌 자료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동자료를 보면 닭고기의 경우에는 2000년도 자급율이 85%이고 향후 10년 후인 2010년도에는 65%로 되어 있다. 계란은 100% 자급계획으로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수입량이 1% 이내라는 점이 참작이 된 셈이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5월까지 3만여톤의 닭고기가 수입되어 지난해에 수입된 물량의 68% 수준에 접근하여 금년 수입 예상치 5만여톤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육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계란의 경우에는 이미 1년 이상 생산비를 밑도는 바람에 식량과 기타 계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였지만 가격회복시 늘 불안한 상태이다.

양계산물에 대한 자급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중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다. 양계업의 특성은 투자에 대한 계획이다. 양계업의 특성은 생산주기가 짧아 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잉생산 시에는 앞이 보이

지 않다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동이 심하다.

과거에는 불황의 골만큼 호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황 속에서도 재투자를 하였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황시에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 호황이 필요하더라도 재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식적인 양계산물의 자금계획은 투자에 대한 지표가 되며, 이를 토대로 경영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정책적으로도 자금계획이 있어야 여기에 알맞는 투자와 병행하여 수급계획이 가능해진다. 목표설정 계획보다 수입이 초과하게 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나오고, 단기 또는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계업에 대한 사회간접 시설이 매우 뒤떨어진 배경도 그간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해 자발적인 생산조절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보다 계획성 있는 경영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생산기반이 서서히 붕괴된다는 점도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적당히 가격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게 방치한다면 자연적인 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인 우리 양계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 양계산업의 구조변화 부채증가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

양계산업은 이제부터 IMF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금융위기 직후 발 빠르게 사육수를 감소시킨 결과 산물가격의 상승으로 부도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가 싶더니 이를 계기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앞이 캄캄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분명히 과거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양계업은 부채라고 해봐야 고작 몇 개월치의 사료외상대금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어 양계농장을 설계하다 보니 원리금 상환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인건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안전한 경영관리가 되겠지만 차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유지한다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금년 채란업계와 같이 생산비 이하에 출하가 지속된다는 것은 그 만큼 부실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일정한 금액의 부채를 갚기 위해 출하가가 낮아지다 보니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입을 보충하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결국 업계 전체가 부실을 불러일으키고, 기존 양계인들이 탈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할 경우 연관 주변 산업도 같은 입장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견딜 힘이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자동화된 시설이 있는 한 양계업은 지속되게 마련인데 땀흘린 양계인들이 보람을 찾기 전에 자리를 비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양계**